심재용 감독,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상 영예

대한민국 육상 발전을 이끌어 온 심재용(63)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이 체육인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체육상을 받는다.

대한육상연맹은 4일 "2021년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상 수상자로 심재용 감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상은 총 9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지며 지도상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해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주어진다.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상을 육상 분야에서 수상하는 것은 황영조와 이봉주를 조련한 고 정봉수 감독에 이어 심재용 감독이 역대 두번째다.

타고난 리더십…김국영·김덕현·정혜림 등 '스타 조련' 명승부사
광주시청 육상팀, 18번의 한국新 갈아치운 전무후무 명문팀 명성
황영조·이봉주 조련한 고 정봉수 감독이어 육상 분야 역대 두번째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상 수상자로 선정된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

심 감독은 한국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 멀리뛰기 1인자 김덕현, 여자허들 대표 정혜림 등 대한민국 간판급 육상선수들을 현재의 위치로 끌어올린 육상계 최고 명장이다.

선수로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으나 지도자로서 육상계 최고 길을 걸었다.

심 감독은 여수 삼일중 1학년 때 육상에 입문, 고교 3년 때인 지난 1978년 100m에서 전남신기록(10초80)을 작성한 단거리 유망주였다.

하지만 당시 육상 명문교인 광주 살레시오고가 아닌 광주체고로 진학하면서 엘리트 선수 생활은 가시밭길을 걸었다. 이에 한때 '외도'를 하기도 했지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육상계로 복귀했다.

1989년 은퇴한 그는 지도자로서 '제2의 육상 인생'을 개척했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지도자로서 월봉 30만원짜리 코치로 후진 양성에 나선 심 감독은 '신의·성실'의 생활 모토를 발판삼아 후진 양성에 매진했고, 1994년 광주시청 육상부 전신인 광주시건설본부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도자는 1등만이 존재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야하는 게 감독직이다'는 지론을 앞세운 심 감독은 자신의 집을 팔아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를 마련하고 대한체육회 시상금도 선수들의 보양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선수 육성에 헌신했다.

심 감독의 열정과 헌신에 지역의 우수선수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선수들도 광주로 향했다. 심 감독의 지극한 선수 사랑과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광주로 향한 것이다.

김재다를 비롯해 박태경, 임희남, 김덕현, 한정미, 배찬미, 김국영, 여호수아 등 우수선수들이 심 감독의 둥지에 모이면서 광주시청은 호화 멤버를 구축했다. 이들의 국내대회 활약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 감독의 지도력은 국제대회와 신기록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김덕현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멀리뛰기에서 8m02의 기록으로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파이널(8명 결선)에 진출하는 등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했다.

심 감독의 애제자인 김국영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100m에 출전해 10초16의 한국신기록을 달성하며 광주시청 육상부의 진가를 명실공히 확인시켜줬으며 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국내 선수로는 첫 100m에 참가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국영은 2010년 남자 100m에서 10초31로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에서 작성한 한국신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갈아치우며 이후 5차례 연속 신기록을 달성했고 현재는 국내 1위인 10초07까지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여자허들 대표선수인 정혜림이 급부상하면서 2011년 제19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위 입상에 이어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대망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동안 심 감독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은 박태경의 한국신기록 5회 수립을 비롯해 김덕현이 8개, 김국영이 3개, 임희남이 2개 등 총 18회에 걸쳐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 제조기' 팀으로 명성을 떨쳐냈다.

현재는 김국영이 한국 남자 100m(10초07), 김덕현이 남자 세단뛰기(17m10)와 멀리뛰기(8m22)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심 감독은 이번 수상에 대해 '주변의 도움'덕분이었다고 겸손해하면서 마지막 목표에 대한 소망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육상의 목표이기도 한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메달 배출이다.

심 감독은 "현재의 성과는 주변에서의 도움 덕분이었다. 또한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땀흘리고 뛰어준 결과가 모아지면서 대한민국 체육상이라는 큰 영광을 안게 됐다.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에서의 메달이 육상 인생 마지막 목표다. 한국 육상이 세계무대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은 있다"면서 "지금도 트랙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제자들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난 3일 열린 EPL 애스턴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6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후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지난 2일 열린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펄펄난 '코리안 듀오'

'리그 1호 도움' 손흥민·'멀티골' 황희찬, BBC 베스트 11 선정

손흥민(29·토트넘)과 황희찬(25·울버햄프턴)이 나란히 영국 방송 BBC가 뽑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가 4일 발표한 2021-2022 EPL 7라운드 '가스 크룩스의 이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3-4-3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 황희찬은 공격진 정중앙에 배치됐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서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당당히 한 자리씩을 꿰찼다.

손흥민은 3일 애스턴 빌라와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토트넘의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2-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27분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선제골을 도우며 올 시즌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고, 후반 26분에는 이날 결승골이 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왼쪽을 허물고 들어간 뒤 상대 선수 세 명이 달려드는 가운데 낮은 크로스를 보냈고, 골대 앞에서 모라와 경합하던 애스턴 빌라의 맷 타깃을 스쳐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 토트넘에 승리를 안겼다.

이 골은 애초 EPL 공식 홈페이지에 루카스 모라의 득점으로 올라가 손흥민의 추가 도움이 기록됐다가 경기가 끝날 때쯤 타깃의 자책골로 바뀌었다.

토트넘은 이 승리로 리그 3연패에서 탈출하며 8위(승점 12)로 올라섰다.

축구 전문가 크룩스는 "토트넘과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최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애스턴 빌라전 역시 까다로운 경기였는데 손흥민이 호이비에르와 모라에게 두 개의 중요한 도움을 올려 줬다"고 평가했다.

황희찬은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책임지며 2-1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올 시즌 EPL에 진출한 황희찬의 리그 첫 멀티 골이다.

크룩스는 황희찬에 대해 "울버햄프턴이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 할 '골잡이'를 찾은 것 같다"며 "황희찬은 두 골을 훌륭하게 넣었고, 모두 히메네스의 도움을 받았다. 황희찬의 마무리 능력은 울버햄프턴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14승 투혼 불구 토론토, 가을야구 무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021년 미국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모처럼 5이닝을 던지고 통산 4번째로 14승 고지를 밟았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역투와 화끈한 타선을 앞세워 12-4로 대승했으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1, 2위인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나란히 승리하면서 아쉽게 1승 차이로 '가을 야구' 출전권을 놓쳤다.

류현진은 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한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솎아내고 2실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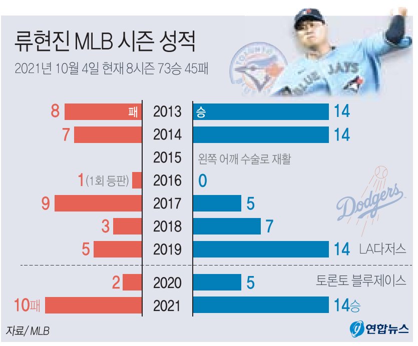
토론토의 12-4 승리로 류현진은 2013-2014년, 2019년에 이어 빅리그 진출 후 4번째로 14승(10패)째를 거뒀다.

승리에도 류현진은 웃지 못했다. 보스턴과 양키스가 나란히 승리해 토론토의 가을 야구가 좌절된 탓이다.

양키스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0-0인 9회말 1사 2. 3루에서 터진 에런 저지의 끝내기 내야 안타에 힘입어 극적으로 와일드카드를 거머쥐었다.

보스턴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일전에서 5-5로 맞선 9회초 라파엘 데버스의 투런 홈런 덕택에 7-5로 이겼다.

보스턴과 양키스는 나란히 92승 70패를 거뒀고, 토론토는 두 팀보다 1승 모자란 91승 71패로 시즌을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제102회 전국체전 필승 결단식 — 선수 414명 등 614명 참가 선전 다짐

지난 1일 열린 102회 전국체전 광주시선수단 결단식에서 김광아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과 임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2년간 흘린 땀 헛되지 않도록"

자전거 천윤영, 레슬링 나홍민·윤동현, 에어로빅 송창섭 등 '금빛 도전'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8일 개막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다짐하기 위한 결단식을 열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역대 최초 고등부만 개최하는 점을 고려해 결단식은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 광주시체육회 임원, 선수단 등 25명이 참석, 약식으로 열렸다.

결단식은 전국체전 참가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기 전달, 격려사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선수단을 위한 격려금도 전달됐다.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 기업체와 관계기관에서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대성포장산업, 광주은행 등 각 기관 단체에서 격려금을 전달하며 광주선수단을 응원했다.

김광아 회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열리지 못한 만큼 2년간 피땀 흘린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비록 대회가 축소돼 올림픽 스타들의 경기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고등부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광주시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비대면으로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선수단은 경북 구미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에 육상 등 총 35개 종목 414명의 고등부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번 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은 2년간 준비한 만큼 고등부 선수들의 경기력을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 천윤영(광주체고)은 이번 대회 2㎞ 개인추발 경기에서 광주에 첫 메달을 안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개인추발 부문 랭킹 1위인 천윤영은 이번 체전에서 약진해 제97회 체전 이후 약소 종목으로 평가됐던 자전거 종목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각오다.

레슬링 나홍민, 윤동현(이상 광주체고)은 이번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올해 전국대회 전관왕에 도전한다. 에어로빅 박혜원, 송창섭, 정성찬(이상 광주체고)은 단체전과 3인조전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특히 송창섭은 지난 제100회 체전에서 고교 1학년으로 참가해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그 아쉬움을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로 설욕한다는 각오다.

광주시체육회는 그 밖에도 축구, 야구, 소프트볼, 검도, 펜싱 등 단체종목에서 값진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고등부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이번도 많아 메달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선수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광주FC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한 광주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포항戰 '6무 15패' 악연

마지막 홈경기 2대3 역전패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광주는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천적' 포항 스틸러스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종우와 두현석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4연패 포함 5경기 무승(1무 4패)을 기록한 광주는 승점 29점(8승 5무 18패)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광주는 지난 11년 동안 6무 14패의 절대적인 열세인 포항을 상대로 또다시 패배를 당하며 기나 긴 악연을 끊어내지 못했다.

벼랑 끝 광주는 초반부터 포항을 몰아 붙였다.

허율이 전반 15분 우측에서 온 김주공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문 위를 넘어갔다.

전반 22분 똑 같은 지점에서 엄원상의 크로스가 허율 머리 위를 지나 이순민 머리에 맞췄으나 포항 골키퍼 이준에게 막혔다.

전반 막판 김주공을 중심으로 포항 골문을 위협했다. 김주공은 전반 37분 왼발 중거리 슈팅 39분 돌파에 의한 오른발 슈팅 모두 골로 잇지 못했다.

후반 2분에는 김주공이 엄원상의 힐 패스를 받아 슈팅했으나 이준 선방에 걸렸다.

광주는 후반 9분 팔라시오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포항에 밀렸다.

반격에 나선 광주는 후반 24분 엄원상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김종우가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26분 교체 투입된 두현석이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광주는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이 아쉬웠다.

광주는 후반 37분과 45분 교체 투입된 신인 이호재에게 동점골과 재역전골을 내리 내줬다.

광주는 추가시간까지 끈질긴 공격에 나섰지만 끝내 포항 골문을 열지 못한 채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다. /박희중 기자